



하나금융, 충북 괴산에 국공립 하나어린이집 개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1일 충청북도 괴산군과 함께 민관 협력으로 건립한 국공립 괴산하나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괴산하나어린이집은 대서리 '괴산미니북힐타운'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949.78㎡, 지상 2층 규모로 총 122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 보육실 9개를 비롯해 유희실, 중정 놀이터, 자연 놀이터, 옥상 놀이터 등 여러 외부 공간을 조성해 연령별, 활동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중·저신용자 외면한 시중銀 3년간 대출잔액 5조 줄었다

4대 은행, 상반기 잔액 13조1416억

신한, 2021년말 대비 1조9918억 감소 가장 많이 줄어... 국민·하나·우리 順 4대 은행서 빠져나간 대출수요 인행행 김재섭 의원 "수익 쫓느라 서민 뒷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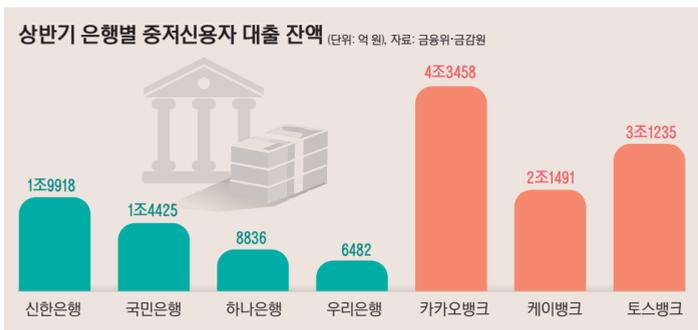
4대 시중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이 3년여 만에 5조원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13조1416억원으로 2021년 말 18조1076억원 대비 4조9660억원 감소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동안 1조9918억원 감소했다. 이어 국민은행(1조4425억원)과 하나은행(8836억원), 우리은행(6482억원) 순으로 중저신용대출 잔액이 줄었다.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신한은행(17.8%) △KB국민은행(16.0%) △하나은행(14.8%) △우리은행(12.5%) 등으로 평균 15%대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은 3조7363억원



에서 9조6184억원으로 5조8821억원 증가했다. 은행별로 증가한 대출 잔액은 카카오뱅크 4조3458억원, 케이뱅크 2조1491억원, 토스뱅크 3조1235억원 등이며, 이들 3사의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평균 30%에 달했다.

김재섭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줄이는 동안 인터넷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며 "시중은행은 매년 이자 이익을 통해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고 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중은행의 20대 청년 중저신용대출 취급액도 2021년 말 대비 1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은 평균 자산이 인터넷

은행보다 13배나 크지만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며 "수익성만을 추구하면서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시중은행의 행태는 금융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금융포용을 실천해야 하며 정부는 시중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들은 중저신용대출이 줄어든 것은 금융당국의 정책 탓이라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저렴해 대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대출을 늘리려는 당국의 정책으로 대출 수요가 시중은행에서 인터넷은행으로 옮겨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국민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인사업자대출119' 평가 1위

KB국민은행은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우수은행 평가결과'에서 대형 부문 종합 1위로 선정됐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KB국민은행은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의 방식으로 개인사업자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직

전 반기 대비해 개인사업자 차주 대상 지원 실적이 대폭 증가했으며, 제도 안내 측면에서도 우수한 점을 인정받아 대형 부문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먼저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 확대를 위해 연체우려차주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 해당 고객에게는 만기 안내와 함께 LMS를 통한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를 안내해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영업직 직원들에게도 전산에 자동 안내되도록 노력했

다. 지난 8월 말 기준 KB국민은행과 거래 중인 소상공인 고객 수는 약 39만개사다. 대출 잔액은 90조원에 달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5년간 KB국민은행의 고객 수는 12만3000개사, 대출 잔액은 24조3000억원 증가했다"며 "특히 올해에만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금액이 28조원에 달하는 등 내수 회복 지원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DC형·DB형 뭐지? ☑IRP에 얼마나 넣지?

"퇴직연금 모든 것,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우리銀, 실물이전제 시행 앞두고 모델 '아이유' 앞세워 광고 제작

우리은행은 이달 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리금융그룹 광고 모델 아이유가 등장하는 '퇴직연금의 A to Z, 우리 연금프렌즈' 광고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우리 연금프렌즈 소개편은 "DC, DB가 뭐지? IRP에는 얼마나 넣지?" 등 퇴직연금에 대한 세대별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을 아이유가 해결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

아이유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 답 우리에게 다 있죠"라며, △168명 연금 전문가 △457개 이상의 투자상품 △연중 수시 수익률 피드백 △비대면 IRP 자산/운용 관리수수료 0원 등 우리 연금프렌즈만의 특성을 보여주고 "우리로 넘어오"라고 손짓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 연금프렌즈는 어렵고 복잡한 퇴직연금에 확실한 답



우리은행이 이달 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리금융그룹 광고모델 아이유가 등장하는 '퇴직연금의 A to Z, 우리 연금프렌즈' 광고를 선보였다.

우리금융 제공을 주는 퇴직연금 브랜드"라며, "이번 광고로 세대별로 필요한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우리 연금프렌즈 소개편에 이어 후속작 우리 연금프렌즈 이 사관/공 공개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퇴직연금 실물이전 금액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경품을 증정하는 '우리 퇴직연금 실물이 나네'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 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한화손보, 정신건강 특약 4종에 '배타적 사용권'

섭식·수면 장애 등 스트레스 질환 내달 '시그니처 여성보험3.0' 탑재

한화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정신건강 관련 특약 4종'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신규 개발된 특약들은 스트레스 관련 대표 질환인 식사(섭식), 수면, 정신장애를 별도 보장하는 상품으로, 오는 11월 선보일 신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3.0'에 탑재될 예정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이번 4종의 배타적 사용권 확보로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시리즈에 총 11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게 됐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장이나 서비스를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인 판매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보험업계 특허권'으로 불린다.

특히 주목받는 특약은 식사장애일일직접치료비(4일 이상·연간 1회)다. 정신건강질환 중 여성 환자수 비율·치사율이 가

장 높은 대표적인 질환인 '식욕부진'과 '폭식증'에 대해 일일치료비를 보장한다. 배타적 사용권은 내년 4월 중순까지 6개월간 유지된다.

이 밖에 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 보장을 담은 특약들도 있다. 수면장애, 식사장애, 기타정신질환과 같은 △특정 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 진단비와 소화기내과, 귀·지름증, 난청 등 △특정 스트레스 관련 질병 진단비는 질병의 경중에 따라 A(20만원), B(100만원)로 구분해 보장한다.

두 특약은 현행 실손의료보험이나 질병일원비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던 정신 및 행동장애 관련 영역을 새로 개척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각각 6개월,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보장받았다.

이와 함께 특정수면검사(수면다원, 다중수면잠복기) 지원비는 불면증과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는 수면 검사비용을 연 1회 각각 지급한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